고문으로 조작된 KSCF 운동

정 상 복

*정상복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KSCF 간사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순례자교회를 설립, 목회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훈련원 원장으로 재임중이다.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과 나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나던 1974년, 나는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약칭 KSCF) 중부지역 대학부 간사였다. KSCF는 학생기독교운동을 하는 학원선교기관이다. 본래 조직이 대학부, 학생사회개발단부, 고등부로 되어 있다가 1973년부터 중부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으로 나누어 기독학생 운동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중부지역은 서울, 인천, 청주, 춘천, 대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중부지역 전체에 있는 대학들을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은 1896년 배재학당의 협성회 활동을 시작으로 보는 견해와 일제 하의 민족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을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협성회 활동은 바로 기독학생운동의 시작이며, 이 운동은 YMCA운동으로 이어져 해방 후 각 교파가 연합으로 학원선교를 별도로 조직하여 한국기독학생회전국연합회(KSCF)로 발전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명칭을 한국기독학생회(KSCM)로 바꾸어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면서 운동성을 강조하여 Movement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에큐매니컬 정신에 입각한 기독학생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KSCM과 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학YMCA연맹, 그리고 대학생YWCA연합회는 이념과 운동내용이 비슷하여 통합을 모색하다가 1968년에 통합대회를 열고 1969년에 대학생YWCA연합회가 탈락한 가운데 두 단체가 통합하여 KSCF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을 새롭게〉라는 깃발을 내걸고 통합한 KSCF는 대학의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교회갱신의 목표를 가지고 한국학생사회개발단을 발족시켜 전통적인 엘리트 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을 탈피하고, 한국사회

의 소외계층인 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70년대에 불거지기 시작한 노동자 문제, 도시빈민 문제 등은 전통적인 기독학생운동이 새로운 운동의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전태일 분신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기독학생운동은 노동운동과 도시산업운동에 깊은 연대를 하게 되었다. 기독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회의 구조악과 모순에 의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사회적 모든 모순은 정치적인 문제에 귀결되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투쟁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이같은 운동은 더욱 가열되어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유인물 배포사건, 10 · 2 서울대 시위사건을 중심으로 기독학생들은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의 전열에 서게 되었고, 이미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탄압과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권력유지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 독재권력은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고, 재야 민주지도자들은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전국조직을 가진 유일한 박정희 정권 반대세력인 KSCF는 1973년 12월 광주에서 개최한 총회와 겨울대회에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드디어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를 발포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금지시키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사상 초유의 반민주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미 몇몇 KSCF 임원들은 극비리에 대규모 학생시위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간사들은 묵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알고 있으면 서로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준비를 했고, 지도자인 간사들은 모른 척하면서 지냈다. 운동자금이 필요할 때도 학생들은 등록금

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고, 간사들은 대충 짐작만 하고 등록금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다.

학생운동의 간사는 매일 학생들과 만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을 한다. 특히 당시 학생운동은 모이기만 하면 정세분석을 하는데, 이 정세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비롯해서 사회적 상황, 그리고 대학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학생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토의하고, 그리고 현실적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보면 전체가 투쟁전략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생활문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장래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개인의 출세나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소외된 민중의 삶에 자기를 어떻게 헌신하며 민족의 과제 해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 그리고 기독학생으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밤새워 토의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당시 기독학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정보원들이 촉각을 세우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몰래 모이는 일이 많았고, 공식적인 모임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사는 항상 장소 선택에 신경을 썼고,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청학련 사건의 내 공소장에 공식 · 비공식적 KSCF 활동이 모두 내란음모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재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구속되기까지

1974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 알게 모르게 4월위기설이 운동권 내에서는 돌고 있었고, 학생들도 발 빠르게 움

직이고 있었다. 당시 우리의 전략은 성직자들이 먼저 유신헌법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일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나면 기독학생들이 그 뒤의 공백을 메꾸면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해 지방에서는 기독학생들이 1차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월 들어 지방 학생들 중에 검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주모자급 학생은 이미 사무실에 발을 끊었고, 이번 시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KSCF는 거여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베다니의 집에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고, 간사들도 구속 각오를 하였다.

당시 안재웅 간사는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서 연행을 각오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었고, 이직형 총무 대행은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부산에서 체포되었으나, 나는 총각이었고 집에 들어갈 일도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 피할 수 있었다.

우선 정세를 관망할 필요가 있어 피할 곳을 물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옛 톨게이트 조금 지나 청계산 맞은편의 기도원에 갔다. 그러면서 4월 3일 시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검거가 시작되고 주동 인물들이 피신한 상태라 4·3 데모가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있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피신하려면 철저히 피신해야겠기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4월 3일은 별일이 없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원에 있었다. 그 때까지 신문도 방송도 안 보고 안 듣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것을 발표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4월 7일, 이 날은 주일이었다.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 우리

사무실 사무원이었던 조운섭씨를 만나보려고 시내에 나왔다. 먼저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갔는데 옆에 앉아서 이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있으려니, 현상수배된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파출소 순경들이었다.

겨우 이발을 끝내고 도망치듯 나와 이화여대 뒤편에 있는 대신교회에 갔다. 당시 나는 그렇게 중요한 수배인물이 된 것도 몰랐고,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학생들이 구속되면 아마도 연행되어 학생들에게 배후조종을 한 혐의로 얼마 동안 구속되거나 아니면 구류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나병식씨(당시 서울대생)와의 관계는 말을 철저하게 맞추어 놓았으니 탄로날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교회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예배가 시작된 것을 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조운섭씨를 찾으니 좌석 중간쯤에 있어 그 옆으로 갔다.

마침 기도중이라 별로 눈치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조운섭씨를 툭 치자 그는 나를 보고 기절할 뻔하면서 "선생님! 여기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습니까" 하면서 기도 중에 나를 끌고 교회당 안 목사 대기실로 급히 갔다.

대신교회는 김문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모님께서 나를 사택으로 은신시켜, 사택에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모두 끝나고 오후쯤 되어 사모님이 시장 가는 것처럼 하여 나를 세브란스 병원 앞까지 데려다주어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사택에 피해 있을 때 몇 번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아 낌새를 챈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태를 대충 짐작한 나는 더 궁금해서 그냥 올 수 없어 다른 사람을 찾아 갔다. 지금은 나의 아내가 되었지만, 당시는 학생이고 KSCF 서울지구 부회장 일을 맡아 있는 정영순씨를 만나기 위해 갔다가 밤늦게

체포되고 말았다.

연행되어 마포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책상 위에 있는 수배자 사진을 보고 현상금 수배인물인지 처음 알았다. 마포경찰서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치면서 누구 어디 있는지 아느냐면서 욱박지르기도 했지만, 경찰은 왜 나를 연행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새벽 두 시경 중앙정보부 수사관 세 명에 의해 나는 중앙정보부6국으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 고문수사가 시작되었다.

고문 수사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연행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열심히 가늠해 본다. 수사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이면 조금 안심이 되고 정보부나 보안사면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차 방향을 열심히 추적해보니 남산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막상 남산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보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

처음에는 종이를 내놓고 항상 하는 것처럼 그 동안의 행적을 반복해 쓰라고 하면서 이틀 정도 잠을 재우지 않더니 셋째 날부터 나이가 좀 든 수사관이 들어와서 "너 이곳에서 싸늘한 시체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협조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하면서 "너 같은 놈 총으로 갈겨서 정보부를 습격하려는 놈인데 우리가 사살했다고 하고 철조망에 시체를 걸쳐 찍은 사진과 함께 발표만 하면 끝"이라고 했다.

섬뜩했다. 그 때는 협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단계적으로 고문을 시작하는데, 첫 고문은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마디마디 끼우고

비틀면서 양 손가락을 누르는 것이다. 앞에 조사관이 있고 양옆에는 고문하는 수사관이 있고, 지원받은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 힘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고문은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못 참으면 금방 볼펜을 빼고 양 손가락을 눌러 피를 통하게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고 제때 원상 회복을 못해 뼈가 허옇게 드러나 상처가 생겨 지금도 남아 있다. 살이 드러나고 피가 나도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 다음에는 엎어놓고 의자로 가슴을 누르면서 그 위를 밟기도 하고 나무 방망이로 의자를 치는 것이다. 그것은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 때문에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런 고문도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것은 기본체조에 불과했다. 며칠 동안 한 잠도 못 자고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붕 떠는 것 같아 제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수시로 깜빡 깜빡 졸게 되는데 그 때마다 수사관이 볼펜으로 손을 찔러서 손이 온통 새까맣게 되었고, 찌르지 않아도 수시로 깜짝 깜짝 놀라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갔다.

며칠이 지나 탈진상태가 되었는데 더 무서운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위 물 고문인데 얼굴에 흰 천을 덮고 위에서 물을 부으면 천이 얼굴에 착 달라붙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몇 번만 하면 숨도 못 쉬고 물도 먹고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는 고문이다. 이런 고문을 할 때는 다른 고문실로 끌고 가는데, 늘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

"목도 컬컬한데 맥주나 소주를 먹여줄까?"

처음에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 고문을 당하고는 정말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고문은 전기 고문인데 전기선을 발톱 사이나 손톱 사이에 연결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고문에는 육전, 해전, 공중전이 있는데, 두들겨 패는 것은 육전, 물 먹이는 것은 해전, 공중에 매달아 돌리는 것은 공중전이라고 한다.

이들 수사관은 아무 거리낌없이 고문을 하고 이를 즐기는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는 어떤 것도 그들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중앙정보부(지금은 국정원)가 발표하는 것은 믿지 않고 누가 뭐래도 없어져야 할 기관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새 시대에 변신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기관은 사라져야 한다.

왜 이런 고문을 당했는가? 처음에는 간첩 누구와 접선했느냐가 주된 초점이었다. 나는 71년도에 아시아지도력개발센터 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 가지고 온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 방에서 압수되어 그것으로 교신을 하면서 암호를 수신하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버티었지만, 결국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시달리다가 이제는 학생폭력시위를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권이 수립되면 총무처 장관이 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나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곳이 중앙정보부다.

나는 학생들이 반정부 데모를 한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누구로부터도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 없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알고 있으면 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몇 번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 본 사람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나병식씨가 자금을 도와달라고 해서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라 안재웅 선생과 협의해 안재웅 선생이 자금을 마련했고, 그 자금의 출처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만약 들통이 나면 당시 안재웅 선생이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되어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을 주었다고 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학생시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

또 그 당시 삼엄한 경계 속에 대규모 학생시위가 가능할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정부를 전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 부분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들은 4.19 학생혁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몇 번이고 연출을 하였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심문조서를 보여주면서 인정하라고 해서 결국 그대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는 자금 부분과 KSCF 활동이 모두 내란음모의 내용이 되었다. 당시 내 공소장의 내용 중에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부분과 학생시위를 위해 자금을 제공한 부분 외에는 모두가 조작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0여일 넘게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는데 갑자기 보따리를 싸라고 한다. KSCF 관계자들은 모두 보안사로 이첩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 왔다. 이제 수사가 거의 끝났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 더욱 불안한 것이다. 이미 고문으로 인해 허리를 거의 쓸 수가 없었고, 왼쪽 고막이 터져 말을 들을 수 없었으며, 손은 군데군데 상처로 얼룩지고 몸도 멍이 들어 걷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포기상태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신앙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매일 매순간 기도를 통해 이번에 살려만 준다면 목사가 되어 용공으로 몰아 사람을 죽이려는 이 모순 타파에 전력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면서 여러번 목사가 될 기회가 많았지만 그것을 피했는

데, 중앙정보부 수사실에서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이다.

신앙은 나를 극한상황에서 구원했다. 보안사 대공분실(일명 빙고호텔)에 가니 상당히 대우가 좋았다. 우선 VIP 수사실에 침대도 있고 욕실도 있고 사면 천장이 유리로 장식되어 있어서(사실 이 수사실은 고위급 관계자가 집무실에서 피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 볼 수 있고 수사상황도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 약간 안도가 되었다.

수사관이 와서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위로도 하고 군의관을 보내주어 진료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회유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푹 자라고 하는데 10여일 넘게 한 잠도 자지 못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어쩌다가 잠에 곯아 떨어졌는데 비명소리가 나 소스라쳐 깨었더니 옆방에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학생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잠이 달아나 다시 긴장을 하고 웅크리고 밤을 새웠는데,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것은 녹음테이프를 틀어놓고 심리전을 유도한 것이라 한다. 얼마 있으면서 그곳에 김동길, 김찬국 교수와 연세대 관계자들이 와 있는 것을 알았다. 보안사에서는 별 고문 없이 수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얼마 지나 보안사로 불려가 카페트가 깔리고 사면이 카페트로 방벽을 한 고문실에 끌려가 나병식씨에게 준 자금이 윤보선 전대통령에게서 나온 자금임을 자백하라고 서너 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치면 다른 사람이 교대하고, 또 지치면 사람을 교대하면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두들겨 패는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부분을 잘 넘겨서 안도를 했는데, 나중에 되게 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심장병이 걸릴 정도의 불안한 날을 보냈는데, 그것은 김용준 박사와의 관계다. 김용준 교수는

고대에서 기독학생회 지도교수로 모시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을 할 때 간사로 들어가 KSCF 대학부 간사로 일하게 되어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분이다.

김교수님은 1974년 KSCF 이사장으로 총무일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사무실에 와서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을 주셨다. 당시 나는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 돈을 주어 얼마나 고맙고 요긴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왜 돈을 주느냐 묻지도 않았고, 누가 준 돈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안사에서는 당시 일본 와세다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기로 한 김 박사님을 출국정지시키고 집요하게 나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었다. 구치소 방에 햇빛 그림자가 방 중간을 지나면 대개 그 날 출정이 없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는데, 그 지점을 지나기까지 정말 가슴을 태우며 매일 매일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장병을 얻게 되었다.

어느 날 대공분실장인 김판길 중령이 보안사에서 나와 마주앉아 사나이 대 사나이로 이야기하자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김용준 박사와 나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종결짓고 내일 출국시킨다고 했다. 나는 초죽음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버텨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절대로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더 이상 추궁을 당하지 않았고, 김 박사님은 일본으로 출국을 했던 것이다.

감옥생활

보안사에서 수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2사하 1호실에 수감되었다. 수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넘어오니 집에나 온 것 같은 평안한 마음이었다. 나의 감방은 그 동안 아무도 수용하지 않은 방 같았고, 바로 옆에

세면장이 있는데 습기가 스며들어 한쪽 벽이 물에 젖어 있었으며, 냉기와 습기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을 곳이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했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실감되었다.

조금 있다가 7호실로 옮겼는데 방 하나 건너에 인혁당 관련자 송상진 선생이 계셨고, 그 건너에 강창덕 선생이 계셨으며, 앞 동 맞은편에는 김찬국 목사님이, 그리고 상층에는 이호철 선생이 계셨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8월 15일 김찬국 목사님이 급히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 목사님이 변기통으로 나오시고, 내가 앞문에 서면 복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 김 목사님이 환한 모습으로 말을 못하고 나에게 수화를 하는데, 먼저 엄지 손가락을 펴신 다음 새끼 손가락을 펴더니 목을 탁 치는 시늉을 하신다.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하고 계속 수화를 했지만 금방 해득할 수가 없었다. 엄지는 대통령이고 새끼손가락은 애인이고 목을 치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윤OO?"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 같은 수화를 하셔서 다시 내가 "육영수?"하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 사통팔방으로 "육영수 죽었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방을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금방 소내는 술렁거렸고, 교도관들이 뛰어오고 난리를 쳤지만 별일은 없었다. 김 목사님만 교도관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후에 들었다.

1심재판이 끝나고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했는데, 그 때까지도 내 몸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누군가 병동에 이감 가서 소식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내가 가기로 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아우성을 치고 문을 차면서 항의를 했다. 그 당시 병동에는 건강한 사람 중에 윤필용씨가 있었다. 대개 유

명인사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은 병동에 수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병동으로 이감을 했고, 비교적 편안한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수용되어 있는 병동 2층 1호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상현, 조연하, 조윤형, 김한수씨가 있었고, 그 방에는 작은 라디오도 있었다. 그 방에서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화장지에 옮겨 적으면 그것을 전달받아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갔다놓고 맞은편 황인성씨(당시 서울대생, KSCF 학사단장)에게 전달하여 금방 소내 전체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전하곤 했었다.

안양교도소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래층에 장준하 선생님과 이해학 목사가 있었는데, 장준하 선생님은 심장병으로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나곤 했다. 그래서 이해학 목사와 농담으로 "가셨어?"라고 묻기도 하고 "부활하셨어?"라고 확인도 했다.

나는 특별히 이인수 대령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인수 대령은 원충연 대령과 함께 반혁명 사건으로 박정희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투옥되어 그 곳에서 간병으로 있었는데, 우리에게 치료도 잘해 주었지만 이곳 저곳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를 많이 도와 주셨다.

나는 고막이 찢어져 귀가 들리지 않고 귀지가 한 곳에 붙어서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인수 대령이 항생제를 주면서 계속 복용해 보라고 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날 귀가 가려워 귀를 후비다가 큰 덩어리를 몇 개 잡아당겨 파냈더니 귀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후 계속 치료해서 고막이 재생하여, 지금도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터진 고막을 회복하게 되었다.

비상군법회의

나는 군대생활을 제3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했다. 당시 우리를 재

판했던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김기형 대령은 내가 있었던 군법회의 법무참모였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관 중에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나를 담당했던 최명부 검사는 김대령 이야기를 하면서 "군법회의에서 일했다고 까불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김 대령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받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을 리 없었고, 정보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지만, 유독 나를 담당한 최명부 검사만은 혹독하게 굴었다. 나는 법정에서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따로 남아 협박을 당한 후에 밤늦게 구치소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우리에게 축제였다. 서울구치소에서 모여 출정을 할 때 우리는 반갑고 즐거웠으며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내 생애에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내 젊은 청춘을 학생운동에 바치는 계기가 되었고,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으며, 이 나라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도 열정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우리 민족사에 큰 분수령을 이룬 사건으로 생각한다. 지식인 운동에 경종을 주어 지식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언론인들의 자유언론투쟁을 유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용공조작 사건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실증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문제가 70년대 운동의 주요 잇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내 모든 운동이 하나로 결집되는 구심점이 되어 그 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운동역량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민주화가

실현되는 기틀이 되었다. 학생, 노동자, 종교인, 교수, 언론인, 여성, 농민 등 재야운동이 하나로 결집되어 그 후의 민주화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특히 민청학련 사건은 가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 세계에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제적 연대를 이루면서 세계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는 이제 민청학련 운동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